담장 때문에 싸움난 '담장 없는 마을'

광주 동림동 주공 임대·일반단지 주민 대립

담장 설치·철거 반복…결국 폭력사태 비화

광주지역 첫 '담장 없는 마을'로 조성된 아파트 주민들이 임대분양단지와 일반분양단지를 구분한 철제 담장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15일엔 담장 재설치 문제를 놓고 이웃 간 폭력사태로까지 번지는 등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단지 간 '대립각'=16일 광주시 북구 등에 따르면 동림동 주공아파트(동천마을)의 임대분양단지(1단지)와 일반분양단지(2단지) 주민들간 대립이 확산되고 있다. 양 단지의 경계에 설치된 40m 길이의 철제 담장 때문이다.

이 담장은 당초 전체 길이 40m 중 보행통로 6m를 제외한 34m에만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2단지 주민들의 요구로 대한주택공사 측이 나머지 구간까지 담장을 설치했다.

동천마을 1단지 관계자는 "전 구간에 담장이 설치돼 버스 승강장이나 학교 갈 땐 200m 가량 돌아가야 한다"며 "원래 담장이 없었던 곳에 설계변경을 통해 담장을 설치한 것은 임대단지의 주민들과 접촉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냐"고 반문했다.

반면 동천마을 2단지 관계자는 "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이 커 안전을 위해 출입을 통제한 것"이라고 맞섰다.

◇설치·철거 반복…폭력사태 비화=담장이 처음으로 설치된 것은 지난 5월. 1·2단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주공 측에서 길이 40m 중 보행통로 6m를 제외하고 철제 펜스를 쳤다. 이로부터 한 달 뒤 2단지 주민들은 나머지 구간(6m)에도 담장을 설치해 달라고 주공측에 요구, 전 구간에 담장이 설치됐다.

그러나 1단지 주민들이 "아이들이 학교 갈 때 불편이 많다"며 담장 철거를 요구했고, 주공 측은 곧바로 담장을 철거했다.

광주시 북구 동림동 주공아파트 1단지와 2단지 사이에 설치된 철제 담장. 1·2단지의 경계에 설치된 40m 길이의 철제 담장 때문에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이 같이 설치와 철거가 수 차례 반복되는 상황에서 15일엔 아파트 단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려는 이웃 단지 주민들을 때린 혐의로 오모(47)씨가 북부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1단지에 사는 오씨는 지난 15일 홍모(43)씨 등 2단지 주민들이 1·2단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오씨에게 '비켜달라'고 말하자 이들 중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그러나 "엿새 전 주공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철거한 담장을 2단지 측에서 다시 설치한 게 문제"라고 진술했다.

오씨와 홍씨 등은 몸싸움을 벌이다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오씨는 홍씨 등을 폭행혐의로 맞고소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법적 검토를 통해 강제철거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양 단지 주민 간 마찰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림주공은 애초 '담장 없는 아파트'를 표방하며 1천442세대(52㎡, 62㎡)의 1단지 임대아파트와 698세대(95㎡, 108㎡)의 2단지 분양아파트를 지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경로잔치 함박웃음 16일 광주시 서구 노블리아부페웨딩에서 열린 '2008 서구 경로잔치'에 참여한 노인들이 판소리와 라틴댄스 등 공연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서구청과 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은 이번 경로잔치에 700명을 초청해 다양한 행사를 가졌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제1호

전남대 정문 '5·18 소공원' 새단장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제1호인 전남대 정문 '5·18 소공원'이 새롭게 단장된다.

광주시는 16일 5·18사적지보존위원회를 열어 '전남대 정문 5·18 소공원 정비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이 소공원은 지난 1999년 조성 이후 주변 경관이 크게 변한데다 목재 다리 등 일부 시설의 노후화로 시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5·18 소공원의 소나무·단풍숲을 가로질러 대운동장과 대학본부를 조망 축으로 하는 보행 통로를 신설, 대학 캠퍼스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고 전시벽을 설치해 5·18 당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또 옛 정문에 설치돼있던 기둥과 철제문도 일부 재현해 5·18 발원지로서 상징성을 강화하고, 만남의 광장 또는 휴게 공간을 겸한 데크광장과 돌 정원을 조성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5·18 민주화운동의 발원지로서 전남대 정문의 상징성이 높아지고 시민·학생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월전·옥동 산단 지원 용지·택지 분양

광주시 도시공사

광주시 도시공사(사장 김영진)는 광산구 월전·옥동 일원에 조성중인 평동2차 산업단지 지원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용지와 단독주택 용지를 분양한다.

이번에 분양하는 용지는 모두 176필지 32만1천874㎡로 이 가운데 지원시설 용지는 24만5천474㎡(54필지),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는 3만2천400㎡(1필지), 단독주택 용지는 4만4천㎡(121필지)다.

공사측은 16일 공고에 이어 27일 접수를 받아 그 다음날 입찰을 실시한다.

지원시설 용지에는 근린생활시설, 기숙사, 의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공장 등을 지을 수 있다. 공사측은 그 동안 여유 부지가 없어 입주를 못했던 기업들의 용지난 해소는 물론 송정·하남지구 생활권의 상권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평동산단은 북쪽에 어등산, 동쪽에 황룡강이 있는데다 주변에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등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 : //www.gmcc.co.kr)를 참조하거나 분양팀(062-600-6737)에 문의하면 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호남·전라선 '열차 카페' 운행

코레일은 장항선에서 성황리에 운행중인 '달리는 열차카페'를 호남·전라선 열차에도 추가 투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열차카페는 스낵공간, 미니콘서트룸, 테라피룸, PC공간, 게임기 등을 갖춘 객차로 코레일은 지난 2월 4일부터 장항선 모든 일반열차의 4호차에 열차카페를 연결해 운행해 왔으며 이번에 호남선과 전라선 일반열차에도 추가 투입했다. /안현주기자 ahj@

광주시 자영업자 돕기 '현금영수증카드' 시행

광주시는 지역 중소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지방예산 집행때 법인카드를 사용해 사업자 계좌로 직접 현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제도는 현재 사용중인 법인카드를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급용 카드로 등록, 카드사용시 거래금액에 대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사업주로부터 발급받아 회계 담당자가 거래처의 입금계좌로 현금을 직접 입금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소 자영업자들은 수수료가 감면된다. 시는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키로 했다. /정후식기자 who@